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탐방객 만족도에 따른 구간별 특성화 연구

한봉호* · 최진우** · 허지연*** · 김선희**** · 안경진*****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 **도시생태학연구센터 HUNECO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전문위원회 · *****뉴캐슬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과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ection Based on Visitor's Satisfactions of the Dulegil in Bukhansan National Park

Han, Bong-Ho* · Choi, Jin-Woo** · Hur, Ji-Yeon*** ·
Kim, Sun-Hee**** · An, Kyung-Ji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Urban Ecology Research Center HUNEC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Seoul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Committee, Seoul Metropolitan Council

*****School of Architecture, Planning and Landscape, University of Newcastle, U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 of Dulegil in Bukhansan National Park in dispersing peak climbing hikers, characterize each section of Dulegil and suggest ideas of improve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survey completed by visitors in all 21 sections of Dulegil. After the construction of Dulegil, the number of visit to Dulegil grew and it was analyzed that Dulegil attracted new visitors given that the rate of young people(aged 19~30) who visited for the first time was quite high. Regarding the frequency of peak climbing, 7.6% of the respondents said “decreased” and 46.2% said “increased”, showing that Dulegil’s effect to disperse peak climbing hikers is nominal. Seven qualities were evaluated regarding Dulegil’s level of satisfaction. Out of those seven, the quality of recreational place and taking a walk achieved high scores of 3.74 and 3.61 respectively. The quality of culture and history scored the lowest with 3.09. Th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 of each section of Dulegil, reason of visit, and the visitors’ level of satisfaction showed that Dulegil is now regarded as a place where they can improve their health through light exercise and walking. In addition, a positive effect can be expected for a long time since there are different ways of utilizing the resources of the National Park, such as getting in touch with nature, preserving ecology, learning history and enjoying beautiful landscapes. If infrastructure and programs specific to each section of Dulegil were improved in a long-term perspective, it would be effective to encourage peak climbers and enjoy the lower parts of the mountain.

Key Words: Trail, Peak Climbing, Dispersing Visitors, Horizontal Hiking

Corresponding author: Jin-Woo Choi, Urban Ecology Research Center HUNECO, Seoul 130-743, Korea, Tel.: +82-2-412-1242, E-mail: jinunechoi@gmail.com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의 정상정복형 수직 탐방객의 분산 효과를 진단하고, 둘레길 구간별 특성화 및 개선방향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방법은 이용자 자기 기입식 조사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둘레길 전체 21개 구간에서 탐방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둘레길 조성 후 북한산 탐방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둘레길에 처음 방문한 만 18~29세의 젊은 연령층 비율이 높아, 둘레길로 인해서 새로운 계층의 탐방객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산 정상탐방 이용빈도는 '감소하였다' 7.6%, '증가하였다' 46.2%로 정상정복형 수직 탐방객의 분산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레길 만족도는 7개의 측면 중 여가장소적 측면이 3.74, 보행만족 측면이 3.61로 높았고, 역사문화 측면이 3.09로 가장 낮았다. 둘레길 구간별 특성과 탐방객의 방문동기, 만족도 결과를 통해 둘레길이 가벼운 운동, 산책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저지대 길에서의 자연, 생태, 역사, 경관 등 국립공원 자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이용문화가 창출되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둘레길의 구간별 특성과 여건, 인프라 및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어 둘레길 구간별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및 프로그램이 보완된다면 장기적으로 정상탐방객의 저지대 탐방문화 유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탐방로, 정상정복, 탐방객 분산, 수평형 탐방

1. 서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건기문화 수요에 대응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지자체, NGO 등에서 조성한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무등산 옛길 등 주제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길은 인공적, 자연적, 문화적 경관을 향유할 수 있는 연결 공간을 지칭하며(김상범 등, 2010), 길 조성 및 계획과 관련된 논의에 가장 적합한 단어는 트레일(Trail)이고, 대부분의 트레킹은 독특한 지점과 다채로운 환경으로 보행자를 이끌어줌으로써 심미적 즐거움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김기원, 2009). 2011년 3월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둘레길'은 숲길의 큰 범주 내에서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 증진 활동을 하는 트레킹길의 의미를 내포하며,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로 사전적 정의가 통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숲길과 유사한 명칭과 형태의 길을 조성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이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안을 공포한 상태이다. 하지만 국립공원 둘레길은 우리나라 대표적 자연생태자원인 국립공원의 길로써 일반적인 길과는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국립공원 둘레길은 국립공원의 자연 및 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 보존 및 복원, 고객 만족, 지역사회 협력을 목표로 국립공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또한 환경생태적, 역사문화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며, 국립공원의 새로운 탐방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한봉호 등, 2010). 국립공원에서는 정상으로의 탐방객 이용 집중으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 고지대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하여

둘레길 조성이 시행되었다. 지리산국립공원 둘레길 조성을 초석으로 변산반도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등 국립공원 인근 지역에 주제길이 조성되었으며, 2019년까지 국립공원 경계 내부·외곽 및 저지대를 중심으로 계룡산국립공원과 치악산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도서지역에 주제길이 조성될 계획이 있고, 둘레길은 각종 홍보와 언론보도로 인해 새로운 걷기탐방문화로 주목받고 있다(유기준 등, 2012; 국립공원관리공단, 2011).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은 기존에 이용되었던 저지대 길을 중심으로 셋길을 차단하고 복원하는 생태계 복원 개념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또한 저지대 둘레길 조성은 정상정복형 수직 탐방행태의 탐방객을 저지대로 이용 분산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였다(유기준 등, 2012).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은 북한산의 자연생태, 경관, 역사문화를 느끼며, 즐겁게 탐방하기 위하여 구간별 차별성 있는 노선 테마를 설정하여 사회적 약자층에게 국립공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한봉호 등, 2010).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은 사회적 측면에서는 수직 탐방문화 수평 탐방문화로의 전환 계기, 학술적 측면에서는 탐방밀도 조절을 통한 수용력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문화적 측면에서는 환경친화적 휴양활동으로 관광의 패러다임 변화 선도 및 사람 중심의 건강과 문화, 도시와 국립공원 연결의 생태 네트워크 역할 등을 하였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권현교 등, 2012).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은 2009년 시범적으로 예약제로 개통된 우이령길과 2009년 하반기 조성된 순례길을 제외하고 2010년 9월 북한산지구 11개 노선이 개통되었고, 2011년 10월에 도봉지구 8개 노선이 개통되었다.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은 전체 70km, 21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시행 후 탐

방객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안정화되어 2011년도 약 850만 명의 탐방객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국립공원관리공단, 2012). 이 수치는 둘레길을 이용하는 탐방객 수는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북한산국립공원 2011년도 한 해 기준 둘레길 탐방객 수는 북한산지구 166만 명(2011. 1~2011. 12), 도봉지구 42만 명(2011. 7~2011. 12)으로 집계되어 약 260만 명의 탐방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 2012). 둘레길 탐방객 수는 둘레길에 대한 탐방행태가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 구간을 이용하는 탐방객, 둘레길과 정상 탐방을 혼용하는 탐방객 등 중복되는 점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레길 구간별 탐방객은 2011년 기준으로 가장 먼저 조성된 순례길(33만 명)에 탐방객 이용이 가장 집중되었으며, 옛성길(30만 명) 또한 이용 집중도가 높았다(국립공원연구원, 2011). 도봉지구는 2011년 개통되어 7월부터 계수기에 탐방객 수가 집계되었기 때문에 구간별 탐방객 수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었지만, 6개월간 이용이 비교적 집중된 구간은 방학동길(13만 명)과 도봉옛길(12만 명)이었다.

본 연구는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을 찾는 탐방객의 자유의지에 따라 설문조사한 구간별 탐방객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구간별 주제와 인프라 및 프로그램 구축 여부를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구간별 특성화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조성 후 애초 조성목적에 상응하는 효과를 진단하고 보완점을 제시하여, 향후 둘레길 구간별 특성화 및 개선방향을 제공하는 것이다.

II. 관련 연구의 동향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에 관한 연구는 둘레길이 조성되기 이전 기본계획 단계부터 수행되어 왔으며, 조성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레길 조성 이전에는 우이령길을 대상으로 생태적 특성과 경관, 인문환경 등을 고려하여 탐방로 조성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저지대를 중심으로 국립공원의 생태, 문화, 경관을 테마로 조성된 탐방로가 국립공원을 보존하고, 탐방객의 이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탐방문화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조우 등, 2009). 또한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조성계획 연구(한봉호 등, 2010)는 국립공원 둘레길의 기본개념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착안하여 둘레길의 조성목적과 의의를 제시하였고, 우이령길을 제외한 둘레길 전체 구간에 대해 구간별 특성에 부합하는 노선의 테마를 구상하여 발표하였다.

둘레길에 대한 만족도 관한 연구는 가장 활발한 연구 분야이다.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지구에 조성된 둘레길을 대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체로 단기간(2009. 9~2009. 12) 설문을 통

해 수행된 이용자 만족도 및 시민인식에 관한 연구(국립공원관리공단, 2010)와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도시형 국립공원 내 둘레길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 연구(김정민, 2011)가 수행되었다. 둘레길 계획요소에 대해 이용자의 구간별, 유형별 만족도를 분석하여 길 조성에 대한 개선방안이 연구되었으며(조우현 등, 2011),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주변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분석하여 둘레길 조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유기준 등, 2012). 최근에는 둘레길 경관이미지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 분석을 하여 경관선호도와 이용만족도의 상관성을 입증하여 길 조성 및 지정 단계에서 경관적 측면의 강조 필요성을 제시하였다(조우현과 이승빈, 2013).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생태적 측면, 경제적 측면, 경관적 측면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중 북한산지구 13개 노선만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이 조성되면서 이용에 따라 과급되는 이산화탄소 저감 및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인 공원 관리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심규원, 2011), 둘레길 무장애 탐방로가 있는 북한산지구 순례길을 대상으로 안내사인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연구(서동익, 2012)가 수행되었다. 손지원과 하시연(2012)은 북한산 둘레길과 울진 숲길, 지리산 둘레길을 대상으로 탐방동기를 조사하고, 이용행태를 비교하여 숲길 특성별 차이점을 도출하였으며, 동일한 대상지에 대해 숲길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여 숲길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용자 특성을 분석하였다(손지원 등, 2012). 오현경 등(2012)은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흰구름길, 명상길, 보루길, 방학동길, 우이령길 등 5개 구간을 대상으로 주변 식물상을 현장 조사하여 장기적인 식물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탐방객으로 인한 탐방로 정비, 답압으로 인한 토양유실, 산사태와 같은 위험요소 대처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경관적 측면으로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에서 조망되는 자연경관자원을 조사·분석하여 탐방객의 탐방가치를 증진시키고, 탐방로에서의 자연경관자원 관리방안을 수립하였다(이민영, 2013). 둘레길에 대한 연구가 둘레길 조성계획과 만족도 분석을 통한 조성방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효과, 시설물, 프로그램, 식물상, 경관 등을 분석하는 연구로 확대되고 있으며, 나아가 둘레길과 다른 길을 비교하고, 탐방객, 지역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조성목적의 일환인 이용 분산효과에 대한 연구는 국립공원연구원에서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의 시계열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지구를 대상으로 둘레길 이용 분산효과 연구(국립공원연구원, 2011; 권현교 등, 2012)가 진행되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북한산국립

공원 둘레길 전체 구간 개통 후 조성목적에 부합한 효과 진단을 하기 위해 둘레길 전 구간에 대한 이용 현황을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의 둘레길 관련 연구들은 주로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지구 13개 노선만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전체 구간에 대한 탐방객의 길에 대한 인식과 자연, 역사, 경관, 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탐방객의 만족도를 분석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둘레길 21개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탐방객의 방문빈도 변화와 구간별 다양한 측면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구간별 특성화 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지

연구대상지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북한산국립공원이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자연경관이 양호하고, 역사·문화 유적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도시형 국립공원으로 5일 근무제 정착,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여가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수요확대 조건을 갖추고 있다(국립공원연구원, 2011). 북한산국립공원은 서울시, 의정부시, 양주시, 고양시 일부 행정경계에 포함되어 있는 국립공원으로 밀집된 도시에 인접한 것이 특징이다.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은 2009년 9월 개통한 북한산지구 둘레길 13개 노선(44km)과 2011년 5월 개통된 도봉산지구 둘레길 8개 노선(26km)으로 총 21개 구간 70km로 구성되어 있으며, 둘레길 전체 구간을 연구대상지로 하였다.



그림 1. 연구대상지 위치도

2. 조사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1년 10월 8일(토요일)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21개 구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 이용자 자기 기입식 조사 방법으로 탐방객의 성별 비율 및 연령층(만 19세 이상)을 다양하게 조사하는 편의추출 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자료는 각 구간별 40부를 확보하여 총 840부의 유효표본을 분석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pm 3.38\%$ point를 허용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북한산국립공원 탐방객 방문빈도 변화 6문항, 방문동기 1문항, 탐방객 만족도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탐방객 만족도 21문항은 문항의 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성격에 따라 네이밍 2문항, 보행만족 3문항, 여가장소 3문항, 자연탐방 4문항, 역사문화 3문항, 경관조망 2문항, 이용시설 4문항 총 7가지 측면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산국립공원 탐방객 방문빈도 변화 6개 문항은 SPSS 17.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의 교차분석을 하였으며, 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21개 변수를 5점 척도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등 부정적 응답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등의 긍정적 응답 중 조사 대상자의 응답이 긍정적 일수록 높은 점수(5점)에 해당하였다. 또한 획득된 자료에 SPSS 17.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량의 기술통계, 빈도분석, 교차분석과 카이검정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응답자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60.0%, 40.0%로 남성이 많았고, 연령은 40대(26.2%)와 50대(33.5%)가 전체 탐방객의 약 60%를 차지하였다. 직업은 전문직(22.4%), 사무기술직(21.3%), 자영업(15.8%), 전업주부(15.6%)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둘레길 탐방객은 주로 가족(32.3%)이나 친구(31.3%)와 동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개인 혹은 단체로 방문하는 경우도 다수이었다. 탐방객의 거주지는 서울시가 69.0%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탐방객도 27.4%로 비교적 많이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지구에 해당하는 둘레길 13개 노선의 탐방객 특성과 유사하였다(국립공원관리공단, 2010; 조우현 등, 2011).

2. 방문빈도 변화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조성 이후 북한산 방문 빈도에 대해 응답자 65.7%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둘레길

조성 후 접근성 향상, 각종 매체를 통한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홍보 등의 효과로 인해 기존에 북한산을 찾은 탐방객의 방문 빈도가 증가하였고, 북한산을 처음 방문하는 신규 탐방객이 유입되었다고 판단된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북한산 방문빈도 변화와 응답자의 연령, 직업이 유의수준 1% 내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어 연령과 직업에 따라 방문빈도가 변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레길 조성 이후 북한산 방문 빈도가 '증가하였다'로 응답한 65.7%의 탐방객 중 40대(71.8%), 50대(70.8%) 연령층과 사무기술직(72.6%), 자영업(70.7%), 전문직(70.2%)의 응답률이 높았다. 비교적 전업주부(67.9%)의 비율이 높았는데, 탐방객의 전체 응답률과 거주지 특성을 고려할 때 둘레길이 북한산을 찾는 전업주부에게 여가공간으로서 장소적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둘레길에 '처음 온다'로 응답한 탐방객은 23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7.4%를 차지하였다. 이 결과는 둘레길 조성 후 각종 언론보도 등의 효과로 인해 북한산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한 것으로 신규 탐방객이 유입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둘레길을 찾는 방문객은 '1년에 1~3회', '한 달에 1~2회' 방문의 응답률이 각각 26.9%, 24.3%의 비율로 방문 빈도가 빈번하지는 않았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방문빈도와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업, 그룹형태 항목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둘레길에 '처음 온다'로 응답한 탐방객의 연령층은 전체 응답자 특성과 다르게 여성(33.3%)의 비율이 남성(23.4%)보다 높았으며, 만 18~29세(53.9%)의 응답률이 가장 많아 주로 젊은 층의 탐방객이 처음 방문하였다. 또한 학생의 비율이 높아 북한산 방문 빈도 문항과 다른 양상을 보였고, 새로운 계층의 수요가 창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룹형태는 단체(48.4%) 및 연인(51.7%) 동반의 탐방객 비율이 높았다.

둘레길에 '처음 온다'의 응답은 애초 둘레길이 북한산을 찾는 정상정복형 수직 탐방객을 저지대로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과 부합하지는 않았으나, 둘레길에 대한 언론보도, 새로운 탐방문화 창출로 잇따른 주제길이 생성되어 신규로 유입되는 탐방객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결과에 상응하였다. 또한 40~50대 탐방객이 주를 이루는 북한산에 만 18~29세의 연령층이 낮은 탐방객이 주로 유입되고 있으며, 학생 응답자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 연인 동반의 비율이 높아 데이트 장소로 이용된다는 것, 단체 탐방객의 증가 등은 둘레길 개통 후 북한산국립공원 탐방객 수(둘레길 탐방객 수 포함)가 개통 전에 비해 증가하였고, 둘레길이 새로운 계층의 탐방객을 유입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¹⁾. 둘레길은 현행 정상정복형 탐방의 이용계층 분산유도가 아닌 또다른 이용행태의 세분시장 확대로 국립공원에 추가적인 탐방집중과 과도화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김정민, 2011).

둘레길 조성 이후 북한산 정상탐방 이용 빈도에 대한 응답률

표 1.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조성 후 북한산 방문빈도 변화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북한산국립공원 방문빈도 변화	변화가 없다	271	32.3
	증가하였다	552	65.7
	감소하였다	17	2.0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방문 빈도	처음 온다	230	27.4
	1년에 가끔 1~3회	226	26.9
	한 달에 1~2회	204	24.3
	한 달에 3~4회	97	11.5
	일주일에 2~3회	58	6.9
	거의 매일	-	0.0
	미응답	25	3.0
	합계	840	100.0
북한산국립공원 정상탐방 이용 빈도 변화	변화가 없다	388	46.2
	증가하였다	388	46.2
	감소하였다	64	7.6
합계		840	100.0

은 '증가하였다' 46.2%, '감소하였다' 7.6%이었고, 북한산 정상탐방 이용 빈도 변화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의 관계 분석 결과,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본 결과로 둘레길을 이용하는 탐방객의 정상탐방 이용 빈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정상탐방을 지향하는 이용행태가 저지대 수평탐방 행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되며²⁾, 둘레길이 조성된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로써, 아직까지는 정상탐방 이용객 분산 효과가 미비하였고, 저지대 탐방 문화로의 변화 또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3. 둘레길 방문동기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을 찾는 방문동기는 전반적으로 '건강관리 차원으로 가벼운 운동을 하기 위해서'로 응답한 비율이 22.6%로 가장 많았으며, '걷기 편한 길에서 산책하고 싶어서(18.6%)' 문항과 함께 보행만족 측면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경관조망 측면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기 위해서'가 13.1%, '친구, 동료, 모임 등 친목도모를 위하여'가 12.1%로 비교적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에 역사문화 및 자연탐방 측면은 5.0% 미만의 응답률로 가장 낮았다(표 2 참조).

북한산국립공원은 국립공원이지만 대도시 근교에 위치하여 오히려 근린공원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이명우 등, 1987), 휴양, 경관 창조 등의 기능 제공으로 서울시와 의정부 및 고양시 등 인근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커서(박봉우, 2003; 조현제, 2003; 성현찬과 민수현, 2003) 응답자들이 건강과 운동, 자연감상을 방문동기로 설정한 것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이연희 등, 2009).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은 인근 주민이 가족과 함께 상시 이용하는 가벼운 산책코스

표 2.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방문동기

구분		응답자 수 (명)	비율 (%)
여가장소	연인과의 데이트장소로 하기 위해서	20	2.4
	가족나들이 장소로 적절해서	76	9.0
	친구, 동료, 모임 등 친목도모를 위하여	102	12.1
역사문화	둘레길 인근 역사문화자원을 느끼기 위해서	42	4.9
자연탐방	자녀의 자연생태 체험 및 교육을 위해서	29	3.5
경관조망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기 위해서	110	13.1
	인근 주민으로서 산책하기 위해서	52	6.2
보행만족	걷기 편안한 길에서 산책하고 싶어서	157	18.6
	건강관리 차원으로 가벼운 운동을 하기 위해서	190	22.6
언론홍보	언론에서 길에 대한 보도가 많아 궁금해서	57	6.8
기타	기타	6	0.7
합계		840	100.0

써 이용이 높은 곳으로(손지원과 하시연, 2012), 방문동기의 설문분석 결과와 동일선상에서 둘레길이 현재까지는 가벼운 운동, 산책 등 건강증진을 위한 걷는 길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산국립공원이 건강 관련 목적의 기존 등산 이용객이 많은 만큼 둘레길이 모든 유형의 걷고 싶은 길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조우현 등, 2011), 여가장소, 역사문화, 자연탐방 등 다양한 응답을 통해 둘레길 조성으로 인한 탐방객의 욕구가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였다.

전체 방문동기 응답비율과 유사한 방문동기는 구간별 다소 차이가 있어 유형화하였는데, 전형적 구간으로 가벼운 운동, 산책, 경관감상 등의 방문목적 응답률이 높은 순례길, 명상길, 송추마을길, 산너미길, 안골길, 보루길, 방학동길, 왕실묘역길 등 8개 구간이 해당되었다. 언론홍보 측면의 비율이 높은 구간은 소나무숲길, 평창마을길, 우이령길로 언론보도로 인한 신규 탐방객 유입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가족나들이 목적으로 방문동기 응답률이 높은 구간은 구름정원길, 내시묘역길, 효자길, 충의길이었으며, 흰구름길, 솔샘길, 옛성길, 마실길, 다락원길, 도봉옛길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구간이었다. 구간별 방문동기는 모두 자연생태 체험 및 교육이나 둘레길 인근 역사 문화자원을 느끼기 위해 방문한 탐방객 수가 가장 적었고, 자연탐방, 역사문화 측면의 목적이 높은 구간은 없었다.

4. 둘레길 만족도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21개 구간에 대한 만족도는 7가지 측면으로 유형화한 총 21문항의 각 문항별 평균값을 분석하였으며, 평균값을 토대로 구간별 만족도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레길 구간별 만족도는 여가장소 측면(3.74)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역사문화 측면(3.09)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네이밍, 보행만족 측면 또한 각각 3.61, 3.60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자연탐방(3.27), 경관조망(3.43), 이용시설(3.28) 측면은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둘레길에 대한 보행, 여가장소적 걷는 길로서 의미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족도 유형별 구간별 평균 점수는 3.18에서 3.70으로 분포하였다. 효자길(3.70), 순례길(3.58), 마실길(3.58) 등이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구간이었고, 명상길(3.09), 솔샘길(3.23), 도봉옛길(3.24)이 비교적 만족도가 낮은 구간이었으나(표 3 참조), 모두 5점 리커드척도 중간값 3.0이 넘는 수치로 대체로 구간별 만족도는 보통이었다. 7가지 만족도 유형중 인프라 및 프로그램 보완으로 개선 가능한 보행만족, 자연탐방, 역사문화, 경관조망, 이용시설 측면의 구간별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둘레길 총 21개 구간을 모두 분석하여 구간별 만족도가 높거나 낮은 측면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네이밍

네이밍 측면은 둘레길 구간별 이름이 잘 지어졌는지 각 구간에서 이름과 어울리는 특징을 찾을 수 있는지에 관한 2문항이었다. 네이밍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구간은 소나무숲길, 흰구름길, 솔샘길, 평창마을길, 산너미길, 안골길, 보루길이었으며, 점수가 가장 높아 만족도가 높은 구간은 솔샘길, 산너미길로 평균 3.90이었다. 솔샘길은 예부터 소나무가 무성하고 맑은 샘이 있어 솔샘이라 불리었으며, 북한산 생태숲 산책로와 잘 연계되어 있고, 산너미길은 저지대 외곽순환도로 및 군부대 입지로 인해 접근이 불량하여 사패산 6부 능선에 조성되어 둘레길 중 가장 힘든 곳으로 구간 특성이 두드러지는 구간이다.

반면에 이름이 잘 지어진 구간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구간은 옛성길이 조선시대 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여 축성된 암문을 지나는 둘레길 중 유일하게 성문을 통과하는 구간이었음에도 탐방객이 성곽과 같은 역사문화 자원을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어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옛성길은 구간 이름과 어울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문항에서도 만족도가 낮았다. 네이밍 측면에서는 내시묘역길, 충의길, 다락원길이 주변 자원과 연관된 구간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표 4 참조).

2) 보행만족

보행만족 측면은 둘레길의 보행에 관하여 이용편의에 대한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방문동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보행만족 측면과 연관되어 평균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다. 만족도가 높은 구간은 소나무숲길, 구름정원길, 산너미길, 안골길이었으며, 점수가 가장 높은 구간은 총 4.7km의 연장으로 노선 현황이 양호한 안골길(4.23)로 의정부시 직동근린공원 목재테크 산책로와 연결되어 탐방객에서 편

표 3.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구간별 만족도

구분	네이밍(3.61)		보행만족(3.60)					여가장소(3.74)				자연탐방(3.27)				역사문화(3.09)				경관조망(3.43)				이용시설(3.28)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소나무숲길 (3.49)	평균	3.80	3.73	4.08	3.93	3.08	3.90	4.08	3.78	3.25	3.05	3.15	3.68	3.13	3.05	2.85	3.23	3.00	3.60	3.55	3.53	3.10					
	표본수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표준편차	0.608	0.640	0.572	0.656	0.888	0.591	0.474	0.768	0.776	0.846	0.864	0.656	0.791	0.815	0.921	0.768	0.877	0.709	0.714	0.816						
2-순례길 (3.55)	평균	3.73	3.63	3.88	3.95	3.23	3.85	4.00	3.80	3.45	3.33	3.35	3.83	3.50	3.45	3.35	3.60	3.30	3.55	3.55	3.50						
	표본수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표준편차	0.679	0.667	0.686	0.677	0.800	0.770	0.751	0.966	0.846	0.829	0.921	0.813	1.013	1.061	0.921	0.778	0.883	0.932	0.815							
3-흰구름길 (3.46)	평균	3.90	3.75	3.85	3.95	2.85	4.05	4.10	3.79	3.25	3.15	3.03	3.85	2.97	3.00	3.44	3.58	3.79	3.40	3.55	3.38						
	표본수	40	40	40	40	40	39	40	39	40	40	39	40	38	39	39	40	39	40	40	40						
	표준편차	0.632	0.927	0.864	0.959	1.272	0.759	0.709	0.801	1.056	1.099	1.088	0.864	0.885	0.858	0.912	0.747	1.056	1.150	0.959							
4-솔샘길 (3.23)	평균	3.95	3.85	3.73	3.65	2.45	3.72	3.95	3.64	3.50	3.10	3.15	4.03	3.25	3.20	3.20	3.65	3.78	3.75	3.55	3.48						
	표본수	40	40	40	40	40	39	40	39	40	39	40	40	40	40	40	40	40	40	38	40						
	표준편차	0.714	0.736	0.933	0.921	1.085	0.857	0.749	0.959	0.751	0.852	0.975	0.660	0.954	0.791	0.939	0.802	0.733	0.899	0.795							
5-명상길 (3.18)	평균	3.58	3.63	3.68	3.59	2.73	3.80	3.90	3.65	3.35	3.21	3.23	3.58	3.05	3.08	2.90	3.50	3.36	3.53	3.43	3.28						
	표본수	40	40	40	40	40	40	40	40	40	39	39	40	40	40	39	40	39	40	40	40						
	표준편차	0.747	0.667	0.730	0.751	1.198	0.823	0.672	0.662	0.921	0.767	0.810	0.747	0.876	0.971	0.940	0.784	0.811	0.987	0.844							
6-평창마을길 (3.30)	평균	3.63	3.73	3.53	3.60	2.55	3.53	3.50	3.62	2.90	2.82	2.73	3.15	2.88	2.78	3.00	3.28	3.88	3.45	3.58	2.93						
	표본수	40	40	40	40	40	40	40	39	40	39	40	40	40	40	40	39	40	40	40	40						
	표준편차	0.705	0.877	0.877	0.928	0.959	0.847	0.906	0.847	0.928	0.970	0.847	1.099	1.067	1.074	1.013	1.123	0.822	1.108	0.903							
7-옛성길 (3.51)	평균	3.38	3.21	3.44	3.41	2.75	3.53	3.45	3.42	2.87	2.74	2.85	3.50	2.89	3.08	2.92	3.59	3.64	3.38	3.20	3.34						
	표본수	39	39	39	39	40	40	38	36	39	39	39	40	38	37	39	39	39	39	40	38						
	표준편차	0.747	0.923	0.821	1.019	1.056	0.784	0.921	0.841	0.951	0.880	0.844	0.934	0.798	0.722	0.839	0.785	0.843	0.815	0.966							
8-구름정원길 (3.45)	평균	3.68	3.53	4.13	3.98	3.28	3.97	4.10	3.78	3.10	3.10	3.15	3.59	2.93	2.95	3.15	3.33	3.50	3.39	3.49	3.28						
	표본수	40	38	40	40	40	39	40	40	39	39	39	39	40	39	40	39	40	38	39	39						
	표준편차	0.730	0.862	0.757	0.800	0.933	0.628	0.709	0.768	0.912	0.912	0.875	0.880	0.944	0.999	0.921	0.772	0.784	0.916								
9-마실길 (3.58)	평균	3.75	3.63	3.90	3.90	3.30	3.73	3.98	3.75	3.38	3.50	3.35	3.68	3.28	3.28	3.60	3.63	3.38	3.35	3.60	3.53						
	표본수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표준편차	0.670	0.807	0.982	0.900	1.018	0.751	0.660	0.776	0.807	0.816	0.770	0.764	0.784	0.816	0.709	0.838	0.925	0.949	0.778							
10-내시묘역길 (3.34)	평균	3.35	3.50	3.90	4.00	3.23	3.48	3.78	3.53	2.88	2.78	2.98	3.53	3.10	2.98	3.18	3.38	3.03	3.25	3.18	3.00						
	표본수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39	40	40	40	40	40	40	40						
	표준편차	0.921	0.784	0.709	0.679	0.832	0.816	0.660	0.877	0.883	0.862	0.800	0.933	0.882	1.000	0.984	0.838	0.920	0.899								
11-효자길 (3.70)	평균	3.72	3.59	3.95	3.95	3.44	3.72	3.93	3.73	3.66	3.58	3.67	3.92	3.36	3.22	3.10	3.61	3.31	3.38	3.62	3.45						
	표본수	39	39	39	39	39	39	40	40	38	38	39	39	39	39	37	39	36	39	39	38						
	표준편차	0.857	0.966	0.783	0.647	0.882	0.793	0.797	0.847	0.909	0.948	0.838	0.774	0.903	0.886	0.912	0.903	0.922	0.990								
12-충의길 (3.40)	평균	3.30	3.20	3.80	3.88	2.85	3.75	3.98	3.79	3.08	2.92	2.79	3.48	2.83	2.65	2.73	3.20	2.79	3.65	3.50	3.03						
	표본수	40	40	40	40	40	40	40	39	40	39	39	40	40	40	40	40	39	40	40	40						
	표준편차	1.137	1.067	0.723	0.853	1.051	0.776	0.698	0.767	0.944	0.870	0.801	0.960	0.958	0.893	0.877	0.939	1.080	0.834								
13-송추마을길 (3.56)	평균	3.58	3.53	3.77	3.93	3.31	3.65	3.80	3.53	3.28	3.28	3.23	3.68	3.18	3.18	3.00	3.35	3.45	3.45	3.48	3.18						
	표본수	40	38	39	40	39	40	40	40	40	40	39	40	40	40	40	40	40	40	40	40						
	표준편차	0.712	0.797	0.742	0.730	0.893	0.802	0.791	0.933	0.716	0.784	0.742	0.797	0.874	0.903	0.847	0.864	0.932	1.061								
14-산너미길 (3.30)	평균	3.93	3.88	4.08	4.05	3.08	3.85	3.90	3.33	3.30	3.18	3.08	3.88	2.93	2.93	3.10	3.85	3.54	3.38	3.50	3.25						
	표본수	40	40	40	38	39	40	40	39	40	40	40	40	40	40	40	40	39	40	40	40						
	표준편차	0.917	0.911	0.859	0.899	1.109	0.802	0.744	0.982	0.883	0.874	1.023	0.853	0.888	0.944	0.982	0.949	1.097	1.192								
15-안골길 (3.58)	평균	3.80	3.88	4.43	4.35	3.90	4.10	4.23	4.08	3.35	3.35	3.05	3.60	3.15	3.05	2.85	3.58	3.68	3.65	3.65	3.73						
	표본수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표준편차	0.758	0.822	0.594	0.770	1.105	0.672	0.733	0.764	0.949	1.001	0.815	0.871	0.770	0.846	0.921	0.844	0.829	0.893								
16-보루길 (3.46)	평균	3.73	3.75	3.98	4.03	3.18	3.58	3.75	3.43	3.48	3.28	3.33	3.43	3.05	3.08	3.43	3.48	3.40	3.70	3.68	3.23						
	표본수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표준편차	0.847	0.809	0.768	0.660	1.059	0.813	0.809	0.712	0.784	0.816	0.797	1.010	0.959	1.047	0.903	0.933	1.105	0.939								
17-다락원길 (3.57)	평균	3.36	3.36	3.84	3.80	2.85	3.85	3.67	3.68	3.13	2.92	3.08	3.64	2.92	2.87	3.27	3.59	3.29	3.24	3.37	3.15						
	표본수	39	39	38	40	39	39	39	38	40	39	36	36	39	38	37	39	38	37	38	39						
	표준편차	0.707	0.811	0.823	0.758	0.904	0.844	0.927	0.904	0.853	1.036	0.906	0.639	0.957	0.875	0.871	0.818	0.927	0.925								
18-도봉옛길 (3.24)	평균	3.59	3.54	3.98	3.88	2.93	3.58	3.65	3.67	2.87	2.82	3.08	3.48	2.76	2.69	3.20	3.53	3.08	3.47	3.23	2.73						
	표본수	39	39	40	40	40	40	40	39	38	39	39	40	38	39	40	40	40	38	40	40						
	표준편차	0.595	0.720	0.660	0.757	0.797	0.781	0.770	0.772	0.875	0.756	0.807	0.847	0.913	0.800	1.043	0.716	0.971	1.006								
19-방학동길 (3.28)	평균	3.55	3.60	3.95	3.85	3.23	3.74	4.00	3.53	3.23	3.31	3.15	3.85	3.43	3.35	3.31	3.54	3.40	3.05	3.23	3.03						
	표본수	40	40	40	40	39	39	39	38	40	39	39	40	40	40	39	39	40	38	40	40						
	표준편차	0.552	0.591	0.597	0.700	0.842	0.785	0.761	0.725	0.733	0.9																

표 4.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네이밍 측면 구간별 만족도 특징

만족도	구분	구간명	특징	평균 (점)	전체구간 평균(점)
높음	이름이 잘 지어진 구간이다	4-솔샘길	· 북한산 생태숲 산책로와 잘 연계되어 있음	3.90	3.61
	구간 이름과 어울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4-산너미길	· 저지대 외곽순환도로 및 군부대 입지로 인해 접근이 불량하여 사패산 6부 능선에 조성되어 둘레길 중 가장 힘든 곳으로 구간 특성이 두드러지는 구간	3.90	
낮음	이름이 잘 지어진 구간이다	7-옛성길	· 조선시대 도성과 북한산성 연결한 탐춘대성 암문에 대한 인식 낮음	3.38	3.63
		10-내시묘역길	· 내시묘역 분포에 대한 구간명 만족도 낮음	3.35	
		12-충의길	· 군부대 시설과 연관성 있는 구간명 만족도 낮음	3.30	
	17-다락원길	·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명칭 인식 낮음	3.36		
구간 이름과 어울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7-옛성길	· 조선시대 도성과 북한산성 연결한 탐춘대성 암문에 대한 인식 낮음	3.21	3.59	
	12-충의길	· 군부대 시설과 연관성 있는 구간명 만족도 낮음	3.20		

표 5.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보행만족 측면 만족도 특징

만족도	구분	구간명	특징	평균 (점)	전체구간 평균(점)
높음	조깅 등 가벼운 운동에 좋은 구간이다	15-안골길	· 의정부시 직동근린공원 목재데크 산책로와 연결되어 탐방객에서 편안한 길 제공 · 공원 내 체육시설이 있는 의정부시 직동근린공원과 연결되어 있어 걷기, 조깅 등 가벼운 운동을 하기에 좋은 것이 특징	4.23	3.61
	걷기에 편안한 구간이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산책하기 좋은 구간이다				
낮음	조깅 등 가벼운 운동에 좋은 구간이다	6-평창마을길	· 평창동 마을 내 콘크리트 보도길	3.53	3.89
		7-옛성길	· 일부 불광동 산림 저지대 급경사 암반 형성, 노면상태 불량	3.44	
	걷기에 편안한 구간이다	7-옛성길	· 일부 불광동 산림 저지대 급경사 암반 형성, 노면상태 불량	3.41	3.86
		20-왕실묘역길	· 만족도 낮음	3.44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산책하기 좋은 구간이다	4-솔샘길	· 일부 계단 및 경사진 구간	2.45	3.08
6-평창마을길		· 평창동 마을 내 콘크리트 보도길	2.55		

안한 길을 제공해 주며, 공원 내 체육시설이 있어 걷기, 조깅 등 가벼운 운동을 하기에 좋은 것이 특징이다.

‘조깅 등 가벼운 운동, 걷기에 편안한 구간이다’라는 문항에서는 평창마을길이 마을길 내 콘크리트 보도길로 만족도가 낮았으며, 옛성길은 일부 불광동 산림 저지대에는 급경사 암반과 지형이 형성되어 걷기 힘든 구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산책하기 좋은 구간이다’ 문항은 솔샘길이 일부 계단과 경사진 구간 특성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에는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애 탐방로가 순례길, 도봉옛길, 우이령길에 조성되어 있으나, 지형적 특성 또는 설문 조사된 지점의 차이 등의 이유로 보행만족 측면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옛성길은 보행만족 측면에서 평균 점수 3.20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표 5 참조). 구간별 특징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수의 탐방객이 노면상태에 따라 만족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3) 여가장소

여가장소 측면은 둘레길 조성으로 인해 친목도모, 가족화합 등의 장소적인 측면의 3문항이었다. 만족도가 높은 구간은 소나무길, 순례길, 흰구름길, 구름정원길, 마실길, 산너미길, 안골길, 우이령길이었으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안골길(4.13)은 안골길 자체의 특성보다는 인접한 공원시설의 영향으로 여가장소 측면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장 조사자의 의견을 취합해 보면, 둘레길 탐방객에게 설문을 권할 때 탐방객 본인이 걷는 길에 대해 둘레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인근 연결된 산책로나 공원 등이 둘레길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구간은 친목도모 장소로서 왕실묘역길이 연산군묘, 정의공주묘, 원담샘 등 주요 역사문화자원이 분포하는 곳으로 여가장소 측면과는 거리감이 있어 만족도가 낮았으며, ‘가족나들이 장소, 연인과의 데이트 장소로 좋은 구간이다’ 문항은 옛성길이 급경사의 지형적 특성으로 탐방객으로 하여금 가볍게 산책하는 노선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해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표 6 참조).

표 6.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여가장소 측면 만족도 특징

만족도	구분	구간명	특징	평균 (점)	전체구간 평균(점)
높음	친목도모 장소로 좋은 구간이다	15-안골길	·안골길 자체의 특성보다는 인접한 직동근린공원의 영향으로 만족도가 높음	4.13	3.74
	가족나들이 장소로 좋은 구간이다				
	연인과의 데이트 장소로 좋은 구간이다				
낮음	친목도모 장소로 좋은 구간이다	20-왕실묘역길	·역사문화자원이 많이 분포하여 친목도모 장소로서의 인식 낮음	3.25	3.73
	가족나들이 장소로 좋은 구간이다	7-옛성길	·일부 구간 급경사 지대로 가볍게 산책하는 노선으로의 인식 낮음	3.45	
		20-왕실묘역길	·역사문화자원이 많이 분포하여 가족나들이 장소로서 인식 낮음	3.35	
		연인과의 데이트 장소로 좋은 구간이다	20-왕실묘역길	·역사문화자원이 많이 분포하여 연인과의 데이트 장소로서 인식 낮음	3.25

4) 자연탐방

자연탐방 측면은 자연체험, 학습, 관찰 등의 내용으로 총 4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연탐방 측면은 순례길, 흰구름길, 솔샘길, 마실길, 효자길, 산너미길, 보루길, 우이령길의 만족도가 높았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효자길(3.71) 구간은 효자동 일대에 박태성 시비의 효행을 기리는 효자비가 마을 입구에 위치하며 그에 대한 전설을 지닌 곳으로 자연체험, 학습, 해설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만족도가 낮은 구간은 자연생태자원 설명에 대해서는 자연 자원에 대한 인식이 낮은 옛성길과 주로 역사자원이 분포하는 도봉옛길의 만족도가 낮았으며, 산림식생 및 야생조류 관찰 문항은 공원구역 외 노선인 옛성길, 자연해설 및 경관해설 문항에 대해서는 평창마을길, 충의길이 이에 해당되었다. 주변 산림 및 숲 시설을 이용하기 좋은 구간이다 문항은 평창마을길이였다. 평창마을길은 마을 내 콘크리트길로 노선 특징으로 인해 만족도가 낮았으며, 이 구간은 자연자원보다는 형제봉 및 보현봉 경관, 북악산, 인왕산 및 서울성곽 경관 등의 경관자원이 풍부한 구간이다. 자연탐방 측면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은 평창마을길은 국립공원경계 외부 구간이면서 마을 내 콘크리트 길로 산림의 식생 및 야생조류관찰, 곤충과 새소리 듣기, 계곡 생태계 관찰, 계곡 물소리 듣기 등의 문항 점수가 낮아 만족도가 낮

았다(표 7 참조).

5) 역사문화

역사문화 측면은 3가지 문항이었다. 만족도가 높은 구간은 순례길, 흰구름길, 솔샘길, 마실길, 효자길, 보루길, 방학동길, 우이령길이었으며, 충의길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순례길(3.43)은 4.19묘지를 중심으로 솔밭공원에서 수유분소까지 순국 선열 묘소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으로 역사문화자원 해설이 잘 되어 있고, 역사문화를 느끼며 관찰할 수 있는 구간이다.

만족도 낮은 구간에서 역사문화를 느끼며 관찰할 수 있는 구간 문항에 대해서는 마을 내 콘크리트 보도길로 역사문화자원이 없는 평창마을길과 역사문화자원이 없는 충의길, 역사문화자원이 있으나, 인식이 낮은 옛성길, 도봉옛길이 해당되었다. 역사문화자원 설명에 대해서는 자원이 없는 평창마을길과 충의길이 해당되었고 도봉옛길이 인식이 낮았다. 사찰문화 체험에 대해서는 주변 사찰이 없는 충의길이 해당되었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충의길은 사기막계곡에서 솔고개~교현리까지 이어지는 숲속 길과 보도를 함께 걷는 구간으로, 솔고개는 백두대간에 근간을 둔 한북정맥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우리나라 전통 지리의 상징적인 인식과 과거 백두산 호랑이가 넘어오던 중요한

표 7.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자연탐방 측면 만족도 특징

만족도	구분	구간명	특징	평균 (점)	전체구간 평균(점)
높음	자연생태자원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구간이다	11-효자길	·효자동 일대에 박태성 시비의 효행을 기리는 효자비가 마을 입구에 위치하며, 그에 대한 전설을 지닌 구간	3.71	3.28
	산림식생 및 야생조류 관찰하기 좋은 구간이다				
	자연해설 및 경관해설이 잘 되어 있는 구간이다				
	주변 산림 및 숲 시설을 이용하기 좋은 구간이다				
낮음	자연생태자원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구간이다	7-옛성길	·자연자원에 대한 인식이 낮은 구간	2.87	3.23
		18-도봉옛길	·주요 역사자원 분포 구간	2.87	
	산림식생 및 야생조류 관찰하기 좋은 구간이다	7-옛성길	·공원구역 외 노선	2.74	3.12
		자연해설 및 경관해설이 잘 되어 있는 구간이다	6-평창마을길	·평창동 마을 내 콘크리트 보도길	
			12-충의길	·비교적 시설이 적게 위치함	2.79
		주변 산림 및 숲 시설을 이용하기 좋은 구간이다	6-평창마을길	·평창동 마을 내 콘크리트 보도길	3.15

표 8.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역사문화 측면 만족도 특징

만족도	구분	구간명	특징	평균 (점)	전체구간 평균(점)
높음	역사문화를 느끼며 관찰할 수 있는 구간이다	2-순례길	· 4.19묘지를 중심으로 솔밭공원에서 수유분소까지 순국 선열 묘소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으로 역사문화자원 해설이 잘 되어 있고, 역사문화를 느끼며 관찰할 수 있는 구간	3.43	3.42
	역사문화자원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구간이다				
	사찰문화를 체험하기에 좋은 구간이다				
낮음	역사문화를 느끼며 관찰할 수 있는 구간이다	6-평창마을길	· 평창동 마을 내 콘크리트 보도길	2.88	3.09
		7-옛성길	· 탕춘대성 앞문에 대한 인식 낮음	2.89	
		12-충의길	· 역사문화자원 없음	2.83	
	역사문화자원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구간이다	18-도봉옛길	· 우암 송시열의 암각(도봉동문) 등 역사자원에 대한 인식 낮음	2.76	3.06
		6-평창마을길	· 평창동 마을 내 콘크리트 보도길	2.78	
		12-충의길	· 역사문화자원 없음	2.65	
		18-도봉옛길	· 우암 송시열의 암각(도봉동문) 등 역사자원에 대한 인식 낮음	2.69	
사찰문화를 체험하기에 좋은 구간이다	12-충의길	· 주변 사찰 없음	2.73	3.13	

이동통로이므로 해설자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나,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해 만족도가 낮았다(표 8 참조). 전체적으로 역사문화 측면의 만족도가 낮는데, 이는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의 보편적인 방문동기가 되지 않고, 역사문화자원이 일반적이지 않기에 자원이 많거나 만족도가 높은 구간 또는 자원은 많지만 만족도가 낮은 구간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었다.

6) 경관조망

경관조망 측면은 둘레길에서 경관 조망의 용이성에 대한 문항으로 2분항이었다. 만족도가 높은 구간은 흰구름길, 솔샘길, 평창마을길, 마실길, 산너미길, 안골길이었으며, 점수가 비교적 높은 구간은 평균 3.71로 솔샘길이었다. 솔샘길은 둘레길 조성 전 도시민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여 셋길 발생이 많았던 곳으로 주로 셋길과 마을길을 연결하여 둘레길을 조성하였고, 주로

도심 경관을 조망하기에 좋다는 인식이 높아 경관조망 측면의 만족도가 높았다.

만족도가 낮은 구간은 산림경관 관찰 측면에서는 경관조망보다는 가벼운 운동을 하기 위한 길로서 인식되고 있는 소나무숲길과 조망대상이 있으나, 인식이 부족한 평창마을길, 충의길이 해당되었다. 도심경관 조망 측면에서는 조망대상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소나무숲길이 만족도가 낮았으며, 도심경관보다는 산림경관을 조망하기 좋은 내시묘역길, 우이령길 등이 해당되었다. 도봉옛길은 전망데크에서 봉우리 조망이 가능하나 인식도가 낮았으며, 대부분 도로변 보도길 구간인 충의길이 만족도가 가장 낮은 구간이다. 경관조망 측면은 환경 인지 관점에서 자연환경과 인공환경, 물리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의 인간환경에 모두 관계되는 환경 인지(임승빈, 1986)와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환경지

표 9.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경관조망 측면 만족도 특징

만족도	구분	구간명	특징	평균 (점)	전체구간 평균(점)
높음	산림(능선, 계곡) 경관을 관찰하기 좋은 구간이다	4-솔샘길	· 둘레길 조성 전 도시민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여 셋길 발생이 많았던 곳으로 주로 셋길과 마을길을 연결한 구간. 주로 도심 경관을 조망하기에 좋다는 인식 높음	3.71	3.42
	도심 경관을 조망하기 좋은 구간이다				
낮음	산림(능선, 계곡) 경관을 관찰하기 좋은 구간이다	1-소나무숲길	· 경관조망보다는 가벼운 운동을 하기 위한 길로 인식	3.23	3.48
		6-평창마을길	· 북악산, 인왕산, 북한산, 관악산 경관 조망 가능하다, 인식 낮음	3.28	
		12-충의길	· 보도를 걸으며 조망할 수 있는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인식 낮음	3.20	
		20-왕실묘역길	· 산림 주변부에 위치하며, 역사문화자원이 많이 분포하여 경관측면에서의 인식 낮음	3.08	
	도심 경관을 조망하기 좋은 구간이다	1-소나무숲길	· 경관조망하기 어려운 구간	3.00	3.37
		10-내시묘역길	· 주변 형성된 도시가 소규모로 도심경관보다 산림경관 조망하기 용이한 구간	3.03	
		12-충의길	· 보도를 걸으며 조망할 수 있는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인식 낮음	2.79	
18-도봉옛길	· 무장애탐방로 전망데크에서 선인봉, 도봉 조망 가능하다, 인식 낮음	3.08	3.08		
	21-우이령길	· 산림 내 구간으로 오봉 등 산림경관 조망하기 좋은 산림 내 구간		3.08	

각과의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으므로(김영환, 2011) 산림 경관을 비롯한 자연경관과 도심 경관의 가중치를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경관 조망은 인간이 환경에 대한 지각을 통해 인지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므로(임승빈, 1986) 입지적 위치가 반영되기에 경관 조망하기가 용이하나, 만족도가 낮은 구간을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표 9 참조).

7) 이용시설

이용시설 측면은 둘레길을 이용하면서 접할 수 있는 인프라나 접근성에 관하여 총 4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만족도가 높은 구간은 소나무숲길, 순례길, 흰구름길, 솔샘길, 마실길, 충의길, 안골길, 보루길의 만족도가 높았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구간은 쉬어가기 편안한 구간이라는 인식이 강한 안골길(3.71)이었으며, 상대적으로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조성되지 않은 왕실묘역길과 도봉옛길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만족도가 낮은 구간에서 안내시설에 대해서는 방학동길과 왕실묘역길의 만족도가 낮았고, 안전 및 완충시설은 지형적 특성으로 옛성길, 내시묘역길, 도봉옛길 등의 만족도가 낮았다. 구간별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항목별 만족도가 낮은 구간이 있지만, 북한산 내에서 안전사고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사인 시설물이 대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서동익, 2012) 이용시설과 안전 및 완충시설은 밀접한 관

계가 있다. 또한 휴게시설은 도봉옛길의 만족도가 낮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화장실이 없는 옛성길, 구름정원길 등과 산림 내 구간으로 화장실이 없는 산너미길, 방학동길이 해당되었다. 또한 구간 내 화장실이 있으나, 인식이 낮은 도봉옛길이 만족도가 낮았다(표 10 참조).

5.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구간별 특성화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에 대한 만족도 특성을 구간별로 분석하여 구간별 평균대비 높은 만족도와 낮은 만족도를 도출하고, 구간별 특성화 방향과 개선내용을 제시하였다(표 11 참조). 구간별 만족도는 여건 특성이나 입지적 여건 등의 이유 혹은 인프라 및 프로그램 등의 이유로 차이가 있었다. 보행만족 측면에서는 계단 및 경사 등 지형적 이유, 콘크리트길 등의 구간 여건과 노면상태가 불량한 인프라 문제로 만족도가 낮았다. 자연탐방 측면에서는 자연자원에 대한 낮은 인식, 기설치된 해설판에 대한 낮은 인식, 둘레길에 대한 걷는 길로서의 인식 등의 이유로 만족도가 낮았다. 역사문화 측면에서는 주변에 분포하는 역사자원에 대한 낮은 인식과 설명 및 해설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역사문화 측면의 만족도가 낮는데, 이는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의 보편적인 방문동기가 되지 않고 역사문화자원이 일반적이지 않기에 자원이 많거나 만족도가 높은 구간 또는 자

표 10.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이용시설 측면 만족도 특징

만족도	구분	구간명	특징	평균 (점)	전체구간 평균(점)
높음	노선계획도, 이정표 등 안내시설이 충분한 구간이다	15-안골길	· 쉬어가기 편안한 구간 인식이 강함	3.71	3.28
	안전 및 완충시설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구간이다				
	휴게시설(벤치 등)이 적정 조성되어 있는 구간이다				
	편의시설(화장실 등)이 적정 조성되어 있는 구간이다				
낮음	노선계획도, 이정표 등 안내시설이 충분한 구간이다	19-방학동길	· 안내시설에 대한 만족도 낮음	3.05	3.43
		20-왕실묘역길	· 안내시설에 대한 만족도 낮음	3.03	
	안전 및 완충시설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구간이다	7-옛성길	· 일부 급경사 암반 지대 위험상 인지, 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낮음	3.20	3.45
		10-내시묘역길	· 안전 및 완충시설에 대한 만족도 낮음	3.18	
		18-도봉옛길	· 안전 및 완충시설에 대한 만족도 낮음	3.23	
		19-방학동길	· 안전 및 완충시설에 대한 만족도 낮음	3.23	
		20-왕실묘역길	· 안전 및 완충시설에 대한 만족도 낮음	3.13	
		휴게시설(벤치 등)이 적정 조성되어 있는 구간이다	18-도봉옛길	· 휴게시설에 대한 만족도 낮음	
	편의시설(화장실 등)이 적정 조성되어 있는 구간이다	7-옛성길	· 화장실 없는 구간	2.60	2.99
		8-구름정원길	· 화장실 없는 구간	2.55	
		12-충의길	· 화장실 없는 구간	2.65	
		14-산너미길	· 화장실 없는 산림 내 구간	2.70	
18-도봉옛길		· 도봉 탐방지원센터 인근 화장실 있으나, 만족도 낮음	2.73		
19-방학동길		· 화장실 없는 산림 내 구간	2.65		
20-왕실묘역길		· 화장실 없는 구간	2.73		

표 11.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구간별 만족도 특성

구분	높은만족도	낮은만족도	특성화 내용
1-소나무숲길	보행만족 여가장소	역사문화	· 소나무숲에서 역사문화자원을 배우고 걷기 편안한 길 · 가벼운 운동을 하기 위한 길에 대한 인식과 봉황각, 순병회선생 및 이용문장군 묘소 등 역사자원이 인접한 구간. → 지속적인 탐방로 정비, 자연·역사탐방 프로그램 구축
2-순례길	여가장소	역사문화	· 4.19묘지, 독립유공자묘역 등의 역사자원이 다양한 길 · 둘레길탐방안내센터가 있는 구간, 4.19묘지와 독립유공자묘역, 싹다리가 위치한 구간. → 자원을 활용한 역사프로그램 구축
3-원구름길	여가장소	역사문화	· 옛 명칭과 현재 명칭이 교차하는 과거와 현재의 공존 길 · 높이 12m의 구름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경관 조망을 할 수 있는 길로 빨래터 계곡이 옛 궁중 무수리들이 이용한 '빨래골' 명칭이 유래된 구간. 역사문화자원 없음 → 구름전망대의 경관자원 특성화를 위한 홍보 확대, 빨래골 유래를 활용한 역사문화자원 인프라 및 프로그램 구축
4-솔샘길	여가장소 경관조망	역사문화	· 국립공원 이미지보다 지역특색을 반영한 솔샘길 · 정릉시가지와 인접하여 강북구, 성북구 도시만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구간. 공원구역 외 구간 → 일부 계단 및 경사진 탐방로가 있는 구간 특성 사전 탐방 안내, 지역특색을 반영한 노선 프로그램 특성화
5-명상길	여가장소	역사문화	· 조용하고 편안하게 명상을 할 수 있는 길 · 조용하고 편안한 길로 일부 급경사 구간이 있지만, 북악하늘길과 연결되고 형제봉능선을 조망하기 좋은 구간 → 급경사 구간에 대한 일부 구간 특성 사전 탐방 안내, 명상을 위한 인프라 및 프로그램 구축
6-평창마을길	여가장소 경관조망	자연탐방 역사문화	· 국립공원 이미지보다 지역특색을 반영한 평창마을길 · 평창동 마을길 내 콘크리트 길로 북악산, 인왕산, 북한산 등 경관 조망하기 좋은 구간. 공원구역 외 구간. → 평창동 또는 해당 지자체구와 협력을 통한 둘레길 주변 환경 개선, 지역특색을 반영한 노선 프로그램 특성화
7-옛성길	경관조망	자연탐방 역사문화	· 조선시대 도성과 산성을 연결하는 탕춘대성 암문이 있는 길로 역사문화측면이 강조되는 길 · 일부 불광동 저지대 산림에 급경사 암반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노면상태가 불량한 구간. 대부분 공원구역 외 구간. → 탕춘대성 암문 등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홍보와 인프라 및 프로그램 구축, 탐방로 및 안전시설 정비
8-구름정원길	보행만족 여가장소	자연탐방 역사문화	· 하늘전망대, 기차촌전망대 등 도심경관을 조망하기 좋은 경관조망 특화길 · 연장 60m의 알모양 스카이워크 설치 구간. 공원구역 외 구간. → 경관조망을 위한 식생관리 및 인프라 및 프로그램 구축
9-마실길	보행만족 여가장소	자연탐방 역사문화	· 국립공원 이미지보다 지역특색을 반영한 마실길 · 은평뉴타운과 인접한 구간으로 보호수, 영산군 이전 묘지, 사찰 등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원구역 외 구간 → 보호수, 문화자원에 대한 인프라 및 프로그램 구축, 지역특색을 반영한 노선 프로그램 특성화
10-내시묘역길	보행만족 여가장소	자연탐방 역사문화	· 내시묘역, 여기소서, 돌레교 등 역사문화 자원을 통해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길 · 안전시설 및 완충시설에 대한 만족도 낮음, 북한산성 집단사가 인접 구간 → 국립공원에서의 자연보전 및 관리 역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 안전 및 완충시설 정비
11-효자길	보행만족 여가장소	역사문화	· 특성화 요소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길 · 효자동 일대 박태성 부부의 효행을 기리는 효자비, 효랑이묘 등이 분포하는 길로 전설을 지닌 구간 → 박태성 부부의 효자비 및 효랑이묘 등 특성화 요소를 활용한 구간 스토리텔링 기법 구축
12-충의길	여가장소	역사문화	· 군부대 인접길로 고생하는 군인 아저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길 · 한복정맥이 통과하는 솔고개가 위치하고, 일부 보도길에서는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등 산림 경관을 조망하기에 좋음. → 경관조망 측면 만족도 증대를 위한 산림 경관 해설관 등 인프라 구축
13-송추마을길	보행만족 여가장소	역사문화	· 갈참나무, 서어나무 대경목, 볼락달나무림 관찰이 가능하여 자연이 가까운 길 · 우이령길을 제외한 연장이 가장 길고 대부분 공원구역 외 구간 → 자연탐방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인프라 및 프로그램 구축
14-산너미길	여가장소 경관조망	역사문화	· 저지대 외곽순환도로 및 군부대 입지로 인해 사패산 6부 능선에 조성되어 산 넘어가는 길 · 돌레길 중 험한 구간 특성이 두드러진 산림 내 구간. 사패산, 도봉산 경관 조망이 용이한 구간 → 탐방객 편의를 위한 인프라 구축
15-안골길	보행만족 여가장소	자연탐방 역사문화	· 안골계곡과 인접한 걷기 편안한 길 · 의정부시 직동근린공원 목재데크 산책로와 연결된 길로 탐방객에서 편안한 길을 제공하고, 만족도 또한 높음. 걷기, 조깅 등 가벼운 운동을 하기에 좋은 구간 → 탐방객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여가휴양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16-보루길	보행만족	역사문화	· 고구려시대 역사문화자원이 숨쉬는 보루길 · 공원구역 내부 급경사지 능선길, 역사문화자원 다량 분포 → 석축 및 보루 등 역사자원 특성화 요소를 활용한 구간 스토리텔링 기법 활용 및 인프라 확충
17-다락원길	보행만족 여가장소	역사문화	· 국립공원 이미지보다 지역특색을 반영한 과거 다락원이 있었던 길 · 안전시설 및 완충시설에 대한 만족도 낮음, 공원구역 외 구간. · 자연탐방 관련 안내 및 해설 인프라 구축 및 안전 및 완충시설 정비
18-도봉옛길	보행만족 여가장소	역사문화	· 도봉산 주탐방로와 만나는 우암 송시열의 압각(도봉동문) 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길 · 전망데크에서 선인봉, 도봉 조망 가능하나, 인식이 낮은 구간. 안전시설, 완충시설, 휴게시설에 대한 만족도 낮음 → 역사자원 특성화 요소를 활용한 구간 스토리텔링 기법 활용 및 인프라 구축, 안전 및 완충시설 정비
19-방학동길	보행만족	이용시설	· 곡식 찧는 방아가 있는 곳이라 해서 방학동길 · 쌍둥이전망대 위치. 선인봉, 만경봉, 자운봉 등 조망 가능. 산림 내 구간. 안내·안전·완충시설에 대한 만족도 낮음 → 경관조망 관련 해설 인프라 구축 및 안내시설 정비
20-왕실묘역길	보행만족	이용시설	· 연산군묘, 정의공주묘가 위치한 왕실묘역길 · 안내시설, 안전시설, 완충시설에 대한 만족도 낮음. → 역사자원 인식 증대를 위한 안내관 등 인프라 및 구축, 안내시설, 안전시설, 완충시설 정비
21-우이령길	보행만족 여가휴양	역사문화	· 2009년 7월 탐방예약제로 개방되어 운영 중인 우이령길 · 오봉전망대가 있고, 주변 봉우리 등 산림 경관 조망하기 좋은 산림 내 구간 → 자연자원 및 경관자원을 활용한 인프라 및 프로그램 구축

원은 많지만 만족도가 낮은 구간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었다. 경관조망 측면에서는 경관조망보다는 다른 측면의 길로서의 인식 특징이 있었으며, 구간별 도심 또는 산림의 보이는 경관이 다른 차이가 있었다. 입지적 위치가 반영되기에 경관 조망 하기가 용이하나, 만족도가 낮은 구간을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인프라 및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경관조망 대상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이 특징이었다. 이용시설 측면에서는 시설물이 없는 구간이 여건상의 문제가 되었으며, 자연탐방, 경관조망, 안내, 휴게, 안전시설 등 이용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이 인프라 및 프로그램 측면의 문제였다. 둘레길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요소 및 인프라를 도입하는 것이 더해지면 만족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³⁾. 인프라 및 프로그램 부족으로 만족도가 낮은 구간은 구간별 특성에 적합한 개선방안이 필요했으며, 보행만족 측면으로 탐방객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40~50대 중년층의 가벼운 운동과 산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므로⁴⁾ 노선 정비 등 인프라와 프로그램 측면의 개선점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연탐방, 역사문화, 경관조망 측면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만족할 수 있는 해설관 설치, 프로그램 구축 및 보완 등의 개선이 필요하였고, 이용시설 측면은 안내와 안전을 연계하고,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였다.

1구간 소나무숲길은 걷기 편안한 길로 지속적인 탐방로 정비와 자연·역사탐방 프로그램 구축, 2구간 순례길은 자원을 활용한 역사프로그램 구축, 3구간 흰구름길은 경관자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적 시설인 구름전망대의 홍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4구간 솔샘길은 공원구역 외 노선으로 국립공원의 이미지보다는 지역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노선 프로그램과 구간특성에 대한 안내시설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5구간 명상길은 일부 구간이 급경사로 인해 명상길에 대한 인식이 낮으므로 명상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6구간 평창마을길은 공원구역 외 구간으로 평창동 마을을 통과하므로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여 둘레길 주변 환경 개선, 7구간 옛성길은 둘레길 21개 구간 중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나, 대부분이 입지여건의 문제로 가장 두드러지는 역사문화자원을 부각하여 홍보, 인프라 및 프로그램 구축의 보완이 필요하였다. 8구간 구름정원길은 경관조망 측면의 특화된 둘레길로 만족도 높은 경관조망을 위한 주변 관리, 9구간 마실길은 대체로 만족도가 높으나 솔샘길과 마찬가지로 지역특색을 반영한 노선 프로그램 강화가 되면 보다 만족도 높은 구간이 될 것이며, 10구간 내시묘역길은 역사성, 이주단지 등 국립공원에서의 자연보전 및 관리 역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과 안전시설이 보강되어야 한다. 11구간 효자길은 자원을 활용한 구간 스토리텔링기법을 적용한 프로그램 구축, 12구간 충의길은 산림 경관조망 측면의 만족도

상승을 위한 해설관 등 구축, 13구간 송추마을길은 자연탐방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인프라 및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14구간 산너미길은 산림을 통과하는 구간으로 화장실에 대한 의견이 많아 친자역적 화장실과 같은 인프라 구축과 15구간 안골길은 전체 구간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구간으로 둘레길의 현재 대표적 이미지인 걷는 길로써의 인식이 높아 탐방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가휴양공간 활용 고려, 16구간 보루길은 역사자원 특성화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기법 활용, 17구간 다락원길은 자연탐방 및 안전 및 완충시설 정비 및 인프라 구축, 18구간 도봉옛길은 암각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기법 활용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19구간 방학동길은 경관조망 해설 인프라 구축 및 안내시설 정비, 20구간 왕실묘역길은 역사자원 인식 증대를 위한 안내관 등 인프라 구축, 21구간 우이령길은 자연·경관 자원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구간 특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을 이용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21개 전 구간에서 각 40부의 설문을 진행하여 840부의 유효표본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둘레길 탐방객 방문빈도 변화에서 둘레길 조성 후 북한산 탐방횟수가 증가하였으며, 둘레길에 '처음 온다'고 응답한 탐방객(27.4%)의 53.9%가 만 18~29세의 젊은 층으로 비율이 가장 높아 기존 북한산 탐방객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둘레길이 새로운 계층 탐방객을 유입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북한산 정상탐방에 대해 약 46%가 증가하였다고 하여 정상탐방 이용객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둘레길이 정상정복형 수직탐방객을 저지대로 이용 분산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2010년 9월 둘레길이 조성된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둘레길로 인해 각종 언론보도나 홍보 등의 이유로 새로운 수요 창출이 되었으나, 아직까지는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을 찾는 탐방객의 주된 목적은 운동, 산책, 경관감상 등으로 보행만족, 여가장소 측면의 목적이 많았으며, 이를 토대로 둘레길 탐방객 만족도를 7개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여가장소 측면이 3.74로 가장 높았고, 보행만족(3.61) 측면이 비교적 높음, 역사문화 측면이 3.09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모든 측면의 점수가 3.0 이상으로 만족도는 대체로 보통이었다. 만족도는 탐방객의 방문동기와 연관성이 있었으며, 구간별 특성이나 입지적 여건 등의 이유 혹은 인프라 및 프로그램에 따라 만족도 차이가 있었다. 둘레길 구간별 특성과 탐방객의 방문동기, 만족도를 통해 둘레길이 아직까지는 가벼운 운동, 산책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길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저지대 길에서의 자연, 생태, 역사, 경관 등 국립

공원 자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이용문화가 창출되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이 다양한 주제를 도입하여 구간별 특성화를 통해 사회적 측면, 학술적 측면, 문화적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하고 의의를 갖고자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탐방객 인식이 미비하다고 파악되었다. 특히 인프라 및 프로그램 측면에서 구간별 특성화가 미비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구간별 보완점 및 관리방안 제시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애초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이용 향상을 위해 둘레길 구간별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및 프로그램이 보완된다면 장기적으로 정상탐방객의 저지대로 탐방문화 유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둘레길의 방문빈도 변화를 통해 이용 분산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조사 시기가 둘레길 조성 후 1년 6개월이 된 시점으로 이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탐방객 만족도를 통해 구간별 특성화를 제시하였으나, 구간별 이용하는 탐방객의 연령대나 직업, 탐방시간 등 다양한 이용계층 및 이용패턴에 따른 특성화는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구간별 만족도의 유형별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보통의 양상을 보여 구간별 특성을 정확하게 내포하는 접근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둘레길 구간별 특성화 된 관리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용자 만족도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이용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주 1.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조성 후 1년간(2010. 9. 15~2011. 9. 14) 둘레길 탐방객을 포함한 북한산 총 탐방객 수는 7,206,225명으로 조성 전(2009. 9. 15~2010. 9. 14) 4,676,182명에 비해 약 5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기, 정릉지구 등 일부 지구에서는 분산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연간 약 177만 명 정도의 신규 탐방 수요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권현교 등, 2012).
- 주 2.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시계열자료 분석 결과, 연간 약 295,533명의 탐방객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북한산 전체를 대상으로 분산효과가 나타났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권현교 등, 2012).
- 주 3. 북한산 둘레길은 다양한 체형활동, 접근성, 보행편의성, 자연문화자원, 코스길이 및 난이도 순으로 이용객에게 접근성, 보행편의성 등 물리적 요소가 선호도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손지연과 하시연, 2012).
- 주 4. 북한산 둘레길은 연령별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며, 중·노년층과 주부의 건강프로그램 및 산림치유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추후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손지연 등, 2012).

인용문헌

1. 국립공원관리공단(2010) 북한산 둘레길 이용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보고서.
2. 국립공원관리공단(2011)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효과분석 연구, 국립공원관리공단 보고서.
3. 국립공원관리공단(2012) 2012 북한산국립공원 기본통계.
4. 국립공원연구원(2011)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이용 분산효과 연구, 국립공원연구원 보고서.
5. 권현교, 심규원, 한상열(2012)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이용 분산효과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6(1): 115-120.
6. 김기원(2009) 숲길 계획의 개념적 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3(2): 11-24.
7. 김상범, 최자운, 정대영, 김은자(2010) 지역 활성화를 위한 테마길 조성 방안, 농촌지도와 개발 17(3): 587-606.
8. 김영환(2011) 도시민의 경관인식 및 도시 이미지에 관한 연구: 청주시민의 설문조사 및 인지지도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 27(7): 143-150.
9. 김정민(2011) 도시형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에 대한 시민 의식,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5(1): 102-110.
10. 박봉우(2003) 도시 숲의 기능, 숲과 문화 12(3): 20-23.
11.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2012) 북한산국립공원 업무계획서,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문서 자료.
12. 서동익(2012) 북한산 국립공원 안내사인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성현찬, 민수현(2003) 도시녹지의 기능 및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1(2): 48-57.
14. 손지연, 하시연(2012) 숲길 특성에 따른 이용객의 이용행태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임학회지 101(2): 309-316.
15. 손지연, 하시연, 김재준(2012) 숲길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용객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임학회지 101(3): 469-479.
16. 심규원(2011) 북한산 둘레길 이용에 따른 CO₂ 저감 미 경제적 효과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5(4): 29-32.
17. 오현경, 한윤희, 조우(2012) 북한산 국립공원 주요 지역의 관속식물상: 북한산 둘레길, 진관내동 습지, 북한동 철거지를 대상으로, 한국환경보존기술학회지 15(1): 35-51.
18. 유기준, 한봉호, 최진우, 허지연(2012)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조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6(1): 113-124.
19. 이명우, 김용석, 권영선(1987) 북한산 국립공원의 이용 행태특성 및 등산패턴, 한국환경생태학회지 1(1): 66-82.
20. 이민영(2013)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자연경관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이연희, 김기원, 변우혁(2009) 도시숲으로서 북한산 국립공원의 탐방객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3(1): 53-61.
22. 임승빈(1986) 환경심리·행태론, 보성문화사.
23. 조우, 김지석, 김종업, 이정재(2009)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탐방로 조성방안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2): 111-114.
24. 조우현, 윤희재, 임승빈(2011) 북한산 둘레길 이용객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9(4): 60-73.
25. 조우현, 임승빈(2013) 북한산 둘레길 경관선호도와 이용만족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1(1): 1-11.
26. 조현제(2003) 도시숲의 기능과 역할, 숲과 문화 12(3): 10-19.
27. 한봉호, 최진우, 유기준, 노태환(2010)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조성계획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 193-197.

원 고 점 수 일: 2013년 3월 11일
 심사 일: 2013년 4월 16일(1차)
 2013년 4월 22일(2차)
 게재 확정 일: 2013년 4월 24일
 4인익명 심사필